

교양 강좌 열어 지역민과 소통하는 광주 '이름다운교회' 김옥환 목사

“교회가 동네에 보탬 돼야죠”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 가발공장 여공 등을 전전하다 혈혈단신 미국으로 ‘식모 이민’을 떠나 16년만에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은 서진규 박사, ‘연개소문’ ‘대조영’ 등으로 고구려 열풍을 일으킨 소설가 유현중씨, 토스트 잠사로 연봉 1억원을 벌고 있는 ‘석봉토스트’의 김석봉 사장.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름다운교회의 교양 강좌에 나선 강사들이다.

아름다운교회 김옥환(46) 목사가 신자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 7월부터 매달 운영중인 교양강좌는 단연 인기다. 그래서 강좌가 있으면 예배 보는 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적이다. 교양 강좌 날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민

김순권 박사·소설가 유현중씨 등 초청 강연 도서관·체육시설 개방... 주민과 함께 호흡

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이 교회에 마련된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도서관을 찾은 때문이다. 아이와 손을 잡고 온 엄마와 직장인, 노인까지 계층도 다양하다. 다른 동네에서 온 주민들까지 있을 정도다. 교회가 동네 주민, 광주지역민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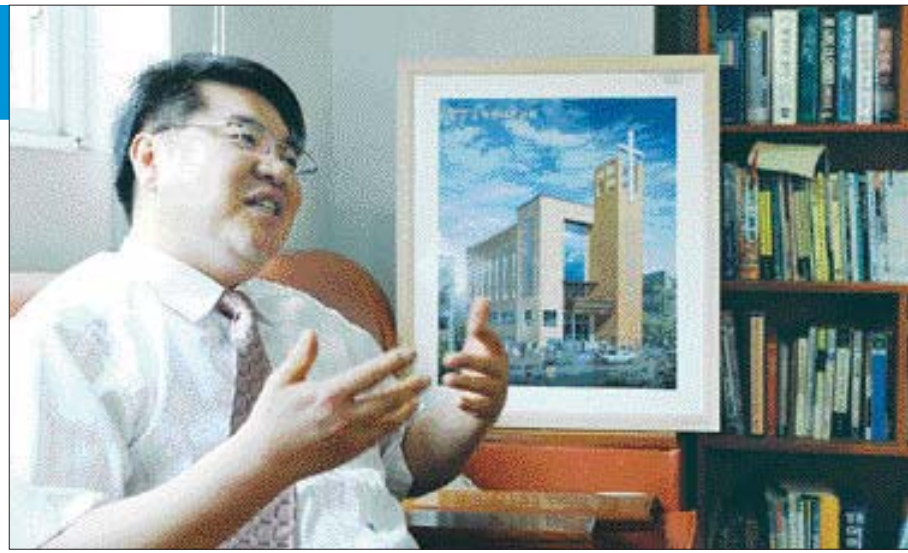
김 목사는 참 특이하고 이상한 목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김 목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다가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양 강좌를 시작한 것도,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개방한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다. 동네 인근 꽃길도 조성했다.

이뿐만 아니다. 오는 9월부터 북카페를 운영, 지역민들간 소통의 자리를 펼쳐 주겠다는 계획이다. 자기계발 센터를 만든 뒤 수익금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생각이다. 그러면서 “신도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터넷을 온 종일 뒤져 인물을 섭외하고 해당 강사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강의 장소, 출판사 등에 전화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엔 반대도 많았다. “교회 본연의 역할이나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이 어디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효과’는 곧 나타났다. 교회 찾는 것을 꺼려했던 일반인들의 발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름다운 교회 김옥환 목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길이 점차 늘기 시작했다. 동네 앞에 현수막을 매달지 않아도 매달 열리는 강좌 시간을 묻는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배드민턴과 탁구장을 찾는 주민들까지 동호회를 만들려는 동호회 수도 5개로 부쩍 늘었다.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얘기하며 운동을 하고, 책을 보는 주민들 때문에 김 목사는 아예 교회 열쇠를 만들어 넘겨줬다.

“사람을 키우고 지역민들 속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 김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다. 지난 1996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따고 지난 1998년부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뒤 곧바로 사모로 임용된 김 목사는 “사람을 키우고 지역민들 속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 김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다. 지난 1996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따고 지난 1998년부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뒤 곧바로 사모로 임용된 김 목사는 “사람을 키우고 지역민들 속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 김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다.

끌어왔다. 지역 사회 속에 밀착,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확박한 삶에 켜지고 소극적인 자세에 젖어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희망을 얘기하다보면 의식 변화도 일어나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나”고 했다.

김 목사는 이어 “모든 주민들이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며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웃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원침 (7566)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ike apartment and new business systems.

새벽엔 낙뢰·폭우... 오후엔 무더운 햇살

용인 고시원 불 7명 사망

광주·전남 곳곳 정전 피해 흠뻑미 매물 장병 2명 사망

25일 광주·전남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맛비로 인해 전선주가 파손되고 항공기가 회항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 경기도 양구군에서는 배수로 작업을 하던 장병이 무너진 흠뻑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한 등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6시40분께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전선주 애자(禱子·insulator)가 낙뢰를 맞아 파손돼 인근 1천 250여 가구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앞서 이날 새벽 4시30분께는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전선주 전선이 낙뢰에 맞아 전선이 끊기면서 인근 공장 60여 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지만 30여분만에 재개됐다. 또 새벽 3시께에는 북구 문흥동 모 초등학교가

낙뢰를 맞아 피뢰침이 파손됐다.

약천후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회항하기도 했다. 무안공항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45분께 홍콩항공 여객기 HX2614편이 짙은 안개와 낙뢰 때문에 활주로에 생긴 구멍(깊이 12cm, 폭 20cm) 때문에 착륙하지 못하고 대구로 긴급 회항했다. 이 비행기는 무안공항에서 승객 164명을 태우고 오전 8시45분께 홍콩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활주로는 10시10분께 복구됐지만 항공편은 결국 결항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께에는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적리 인근 육군모 부대에서 산사태가 발생, 배수로 작업을 하던 장모(24) 하사와 전모(22) 병장 등 장병 2명이 흠뻑미에 매몰돼 숨졌다. 25일 경북 일부 지방에 내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로 인해 침수피해가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25일 오후 담양군 담양읍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나무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화 추정...68개 방 밀집 인명피해 커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고시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 불이 난 고시원은 각 방의 면적이 6.6㎡가 채 안 되는 68개의 방들로 밀집해 있어 유독가스가 치솟으며 인명피해가 컸다.

이날 오전 1시2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0층짜리 상가건물 9층에 있는 고시원인 'T 고시텔'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40분만인 오전 2시15분께 꺼졌다.

이 불로 이영석(38)씨 등 7명이 사망하고 이철수(45)씨 등 4명이 연기를 흡입, 용인 강남병원 등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 일부는 중태다 사망자 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T고시텔 관리인 고모(여·46)씨는 “화재 비상벨이 울려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고 유독가스가 치솟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T고시텔에는 40여명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외에 3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텔 6호실과 8호실이 불에 타고 빈방이었던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8호실의 침대 일부만 타올라 화재 원인은 화인이 될 만한 전열기구 등도 없어 누군가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또 6호실도 함께 불이 난 것을 보면 2개 방에 연달아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이 난 T고시텔은 지난해 1월5일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아 현재까지 1년 7개월째 운영중이며, 임용직 근로자 등 영세민과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뇌물공여 혐의 포착 중공 본사 압수수색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오전 9시5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성남시 분당구 대현동우택공사 본사의 택지 설계단과 택지개발처, 도시기반처 등 3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3개 부서에서 7상자 분량의 최근 3년간 공사발주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공(前) 서울본부장 권모(61·구속)씨가 2005년 5월 퇴직 후 부회장으로 입사한 토목설계회사가 3년여 동안 200여건의 설계용역을 주공으로부터 수수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말·휴일 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하지만 강수량은 10mm 내외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6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한 때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9~32도로 예상된다. 휴일인 27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한 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July 26th, including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and a table of daily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맞수’ 강운태-지병문 ‘500만원 진실’ 법정 공방 姜 “공공이 있다” 池 “난 모르는 일”

‘금배지’를 놓고 광주 남구에서 두 차례 사생결단을 벌였던 무소속 강운태 의원과 지병문 전 국회의원이 이번엔 법정에서 만나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강 의원의 공판에 지 전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 25일 오전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형사사(부·이재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처음부터 지 전 의원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사였다. 두 사람은 광주 남구 선거구에서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두 차례 맞붙었던 ‘정적(政敵)’.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은 강 의원이 지 전 의원에 무릎을 꿇었고, 4년 뒤 벌어진 18대 총선에서는 강 의원이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를 되찾았다. 이 때문에 법정은 일찌감치 당시 선거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로 가득 찼다. 강 의원이 선거를 도와 달려온

겨운동원 서모(52)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는지가 쟁점인 이날 공판에서는 지 전 의원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노리는 지 등을 두고 지 전 의원과 강 의원의 축이 맞섰다. 강 의원은 “지 전 의원은 낙선 직후 고재유 전 광주시장을 만나 ‘곧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민주당 남구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는 등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 뒤에 ‘공공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 전 의원은 “다른 사람(강 의원)이 거꾸러진다고 해서 뭔가 해볼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몰랐을 뿐더러 서씨의 제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강 의원에 뒤지고 있던 지 전 의원이 서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미리 알고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면 선거일 이전에 서씨를 시켜 폭로했을 것”이라며 서씨의 제보는 자신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노총 지도부 체포 영장 경찰 “서두르지 않겠다”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영장 강제 집행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대상자가 있는 민주노총 건물 내부로 들어갈 계획은 당분간 없다”며 “그러나 이 위원장 등이 밖으로 나온다면 철저히 검거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0대가 기괴모 차 출저 무면허 운전

○아버지와 이혼한 계모의 차를 훔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달미.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W(18)군은 지난 21일 새벽 4시10분께 계모였던 S(48)씨의 승용차를 몰래 훔친 후 친구 두 명과 함께 두 시간가량 무면허로 운전하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S파라드 도로 옆에 설치된 소화전과 부딪쳐 사고를 냈다는 것.

○S씨는 다음날 오전에서야 승용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도난 신고했으며, 전 남편의 아들인 W군이 의심스럽다고 진술.

○경찰은 W군과 친구들이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해 조사한 결과 도난 차량이 모 공업사에서 수리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W군을 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 /이종형기자 gollae@